

감비아에서 소식 전합니다

2021년 1월 23일

감비아의 교통신호판

경찰서의 조그마한 오피스로 들어가니 5명 정도의 사람들이 앉아있고, 한 경찰관이 초등학교 교사처럼 막대기로 사람들을 가리키며 질문을 합니다. “감비아에 교통 신호판이 몇 개 있습니까?” 사람들이 답변을 잘 못하자 들고 있는 막대기로 저와 제 아내를 가리키더니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감비아에 교통 신호판이 몇 개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아나? 이것 대답을 못하면 면허증 시험 떨어지는 건가?’ 순간적으로 조금 당황했습니다.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하니 다르게 설명을 하는데 역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글세요” 하니 포기한듯 자기 뒤에 있는 교통신호 싸인들을 가리키면서 “감비아에는 교통 신호판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아하, 교통 신호판 갯수를 묻는게 아니라 교통 신호판 종류의 갯수를 물어보는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그 경찰관은 막대기로 신호들을 가리키며 강의를 이어가고, 사람들이 저마다 열심히 대답을 하며 5분 정도의 교육이 계속 되었습니다. 감비아의 삶은 예전 한국을 떠올리는 정겨움을 담고 있습니다.

매년 초에 운전면허증과 비자를 갱신합니다. 올해는 면허증 갱신하는 일이 더 복잡해져서 총 4곳을 들러서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1-2년전부터 시작된 컴퓨터 작업화로 뜨거운 햇빛 아래 몇 시간씩 기다려야 했던 이전보다는 오히려 시간이 단축된 것 같습니다. 감비아가 느리지만 조금씩 발전하는 느낌입니다.

가진 것과 상관없이 (없어서?) 행복한 사람들

12월 31일 10시 30분에 교회에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과 간증, 설교와 설교 이후 찬양으로 이루어진 예배입니다. 간증시간에 서로서로 손을 들어 앞에 나가 간증을 하는데 특별할 것은 없는데도 감사가 넘쳤습니다. 간증만으로도 30-40분이 지나고, 설교 후 12시가 넘어 새해가 되니 모두 일어나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성도들이 복도로 나와서 춤을 추며 돌기 시작했습니다. 10분도 넘게 춤을 추며 기쁨의 환호가 예배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도들의 간증과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이곳 사람들은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명이 있음을, 또 한 해를 주님을 감사하는 성도들을 보며, 가진 것과 상관없이 감사하고, 오히려 가진 것이 적어서 더 감사할 수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다니엘 자타 목사

지난 달에 나눴던 다니엘 자타 목사의 소식입니다. 한국 총신신대원 글로벌 M.Div. 프로그램에 합격을 했고, 학교에서 장학금 확보를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학비 절반의 장학금, 또 한 교회가 나머지 학비 장학금, 그리고 일산스피릿 교회가 기숙사와 생활비 장학금을 제공하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기본적인 학업과 생활에 대한 장학금이 마련되어 학교에서 입학허가서와 비자 준비를 위한 서류를 보냈습니다. 이제 이 서류를 받는대로 다니엘이 세네갈에 있는 한국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받고 2월 중에 한국에 입국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여행, 한국 도착 후 자가격리, 그 이후의 한국 생활을 배워가는 것들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또 주께서 모든 일에 길을 만드시리라 믿습니다.



(설교하는
다니엘
자타-왼쪽)

(예배 드리는 모습)



가족 이야기

아내는 여전히 감페스 선교단체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간사 모임, 기도 모임, 컨퍼런스 준비, 센터 정리 등으로 바쁜 1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몇개월 전 기도편지에서 언급했던 아미 자매와 아내가 얼마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아미는 스스로를 독실한 이슬람교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아미와 차를 마시다가 그의 어려운 형편을 듣고 기도해 줘도 되겠냐고 하니 조금 주저하다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아미가 평평 울었습니다. 왜 울었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아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받은 것은 처음 일이고 주께서 아미에게 긍휼을 베푸시길 기도합니다.

에스더는 3 주간 감비아에 와서 대학 지원 3 군데를 마치고 잘 쉬다 세네갈로 돌아갔습니다. 에스더가 다니는 학교의 고등학교 선생님 세 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이 되어 당분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한다는 소식이 며칠 전에 왔습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모두 무사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세네갈에 도착해서 대학 진학에 대한 부담감과 학교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해서인지 며칠 전에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부담감을 내려놓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고 했는데 여전히 힘들어 합니다. 무엇이든지 매우 재밌어하고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해 왔는데 마지막 학기가 되니 좀 지치는 것 같습니다.

지호는 여전히 학교 잘 다니고 있고 감비아에서의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8월부터 세네갈

선교사 자녀 학교로 옮기기 위해 지원서를 제출하고 기숙사비의 일부를 보냈습니다. 아직 반년이 남았지만 아들을 보낼 생각을 하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1 2 학기에 기독교학과에 새로운 신입생들이 들어오고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2 다니엘 자타가 2 월 중에 비자를 받고 한국으로 가는 일이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3 이현정 선교사의 어머니가 폐암 1 기 진단을 받으신 후 수술이 잘 되었고 회복중에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4 에스더 대학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5 가족 모두의 건강과 사역과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윤만희 선교사는 감비아의 유일한 신학 학위(B.A.) 프로그램인 감비아대학교 기독교학과에서 40 여명의 학생들에게 성경과 신학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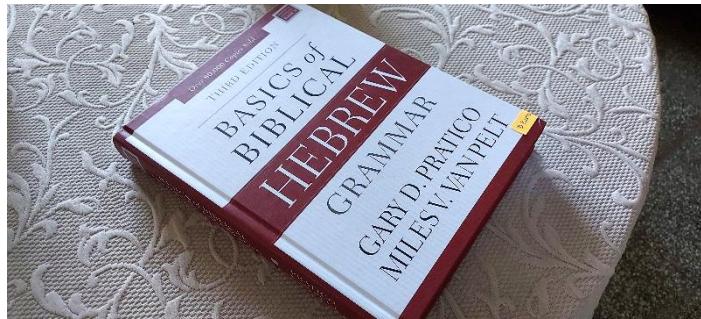
가족 이현정 선교사와 에스더, 지호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윤만희 선교사의 Global Scholars Canada 페이지:
<http://www.globalscholarscanada.ca/about/gsc-scholars/manheeyoon/>
Email: manheeyoon@gmail.com, 카톡 ID: manhyoon

1. 제 학생이 담임목사로 있는 브리카마 장로교회의 수련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감사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사진은 강사로 온 저를 위해 교회에서 준비한 것입니다.



2. 학생들을 위해 히브리어 교재와 사전, 성경등을 구입했습니다. 아직 더 많은 책들이 영국에서 오고 있습니다.



3. 올해 가을에 이사할 곳을 알아보던 중에 방문한 켐부제 마을의 지도자 알칼로의 집 마당에서.



4. 운전면허증 갱신하는 곳 전경입니다. 2 시가 되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5.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 딸 제니퍼의 헌신예배에서 기도



제니퍼 사진

